

소공동체 모임

천주교 산호세 성당

2005년 2월

< 소공동체 모임은 신자들의 기도 모임입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청을 들어주십니다.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모임은 60분에서 90분을 넘지 않도록 하며 집주인은 간단한 차를 준비하는 정도가 좋습니다.>

모임 순서

소공동체 모임 준비 : 중앙에 십자가와 그 옆에 성모상을 준비하고 촛불을 켜 놓는다. 어린이들이 여럿이 있으면 별도로 어린이들을 위한 기도실도 준비한다.

개인 준비물 : 성서, 묵주, 기도서, 영적 필기도구 등등

1. 시작 성가: 34장(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주)
2. 묵주 기도 봉헌: 반장은 미리 그날의 지향에 대해 알려준다. 5단을 봉헌한다.
(새 성전이 마련될 때까지는 성전건축을 지향으로 바친다)
3. 성서 읽기: 요한 12장 20-33절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 예수)
 - 그날 복음, 혹은 자유롭게 성서를 택할 수 있다.
 - 대표 교우가 큰 소리로 낭독한다.
 - 돌아가면서 1절씩 읽는다.
 - 잠시 침묵 속에서 자신에게 닿는 구절을 마음에 새긴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도한다.
4. 말씀 나누기
 - 말씀 나누기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이다.
말씀이 끝나면 '주님 영광 받으소서' 라고 기도한다.
 - 말씀 나누기는 토론의 장소가 아니기에 토론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기쁜 마음으로 경청한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교우를 위해 기도한다.(화살기도)
5. 자유기도 봉헌: 빠짐없이 돌아가면서 개인의 기도를 봉헌한다.
6. 공동기도 봉헌: 가정, 자녀, 나라, 평화, 외교인 등 공동기도를 기도서에서 함께 봉헌할 수 있다.
7. 기타: 새 교우 인사, 공지사항, 다음모임 결정
8. 주님의 기도: 서로 손을 잡고 주님께 기도를 드린다.
9. 마침 성가: 124장(은혜로운 회개의 때)

MEMO

[아시겠지만]

* 전례 중에 ‘환호’ 를 한다고요? *

일상 생활에서 우리는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동의하거나 환영하고 찬성을 표시할 때에 흔히 한두 마디의 짤막한 환호를 하거나 박수를 치곤 합니다.

전례 중에 하는 ‘환호(acclamation)’도 이와 비슷하게 주례자나 전례 봉사자의 기도, 권고 또는 동작에 공동체 전체가 동의와 찬성을 표시하는 짤막한 말씀을 뜻합니다.

언어학적 의미로 보아 ‘환호’는 한 단어(예: “아멘”)나 간단한 문장(예: “하느님 감사합니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으로 구성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긴 문장으로 된 환호도 있습니다. 긴 환호는 자체의 문학 양식 때문에 흔히 환호라고 하지 않고 ‘찬미가’, ‘감사가’라 부릅니다(예: ‘대영광송’, ‘거룩하시도다’, ‘하느님의 어린양’ 등).

초대교회는 유대인들의 기도 관습을 본떠 전례 중에 환호를 많이 했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전례전송이 되어 신약성서에 반영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멘”, “알렐루야”,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느님은 오로지 한 분이시다”, “오소서, 주 예수님” 등입니다.

그 후, 예식이 점점 다양해지면서 전례 중에 행해지는 환호가 더 많이 생겨났습니다. 흔히 기쁨, 신앙, 감사를 드러내는 전례의식, 하느님의 말씀, 주례자나 전례봉사자의 기도나 인사 끝에 환호를 합니다.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전례 환호에는 성서적 환호도 있고 창작 환호도 있습니다. 성서적 환호는 “아멘”, “알렐루야”, “호산나” 등이고, 창작 환호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등입니다.

전례 중에 하는 환호는 교우 전체의 반사적인 외침이기 때문에 성격상 노래로 읊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우 전체가 노래로 부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또 노래로 부를 때 그 의미를 제대로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노래로 만들어진 환호라 해도 멜로디가 지나치게 길거나 복잡하면 환호의 특성을 잃어 버리기 쉬우므로 작곡할 때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서묵상>

주제: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 예수(요한 12, 20-33)

과월절을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온 순례자들 중 그리스 사람 몇이 필립보에게 예수를 뽑기를 간청한다. 이들 이방인들은 장차 예수를 통해 구원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될 ‘모든 사람들’(32절)을 대표하고 있다.

그들이 예수를 찾고 있다는 사실은 영광의 때(죽음과 부활)가 임박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은 모든 백성들을 당신께로 불러 모으게 될 구원 사건이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밀알의 비유를 들어 씨앗이 땅에 묻혀 죽은 듯 보이나 수많은 낱알들이 맺어져 저마다 생명을 지니고 살 뿐 아니라 다음 씨앗으로 생명을 이어주는 힘을 갖게 하듯이, 당신의 죽음 역시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것임을 가르치신다.

그러므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도 이 세상에서 자신의 목숨을 절대적인 우위에 두어서는 안된다. 예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더 사랑하라고 권고하시며 하느님과 합일을 더 소중히 여김으로써 당신의 길을 따르라는 것이다.

이제 예수께서는 죽음에 직면하여 고뇌하신다.(27절)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임으로써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아버지께서 아들과 함께 하시어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증거이며 인간들의 구원을 위한 아버지의 응답이다.(28절)

세상의 통치자인 사탄을 심판하고 쫓아내는 예수의 승리는 모든 사람들을 현세의 어둠의 세력에서 이끌어내어 영광스런 당신 나라로 맞아들일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성장시키며 꿈을 실현시키고자 온 전력을 다한다.

예수께서는 자기 목숨을 미워하며 밀알처럼 죽으라고 가르치신다.

예수께서는 인간의 기본적인 자기 보존 본능이나 자기 실현 욕구를 부정하시는 것은 아니다.

이기적인 자아가 죽어야만 비로소 참된 자아를 실현시키며 완성시킬 수 있음을 가르치는 것이다.

현세적이고 유한한 것에만 집착하지 않고 영원하고 무한한 것에 눈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다.

나눔: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을 건잡을 수 없으니 무슨 말을 할까?” -27절

- 당신의 마음이 어둡고 혼란하여 갈등 속에 있을 때 어떤 식으로 해결하십니까?
- 요한 12, 20-33절의 말씀을 읽고 특히 마음에 와 닿는 구절에 대해 나누어 봅시다.

[겨자씨]

세 월

이슬방울 속에 빛나는 아침의 표정은
정오의 태양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그대 마음 안에서 빛나는 생명의 모습도
다른 생명들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이슬방울은 빛을 받아들여 빛을 반사하고
생명과 그대 또한 하나이기 때문에
그대는 생명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대 위에 어둠이 내리면
'이 어둠은 밝지 않은 새벽이다
밤은 고통이 나를 덮어 놓더라도
새벽이 언덕에서 밝아오듯
나에게도 새벽이 밝아올 것이다'라고 말하십시오
백합 속에 둥글게 맺힌 이슬방울은
마음을 신의 가슴에 모으는 그대와 같습니다
모든 세월의 빛이 그대의 주위에서 빛나고 있음을
아직도 그대는 모르고 있습니까.

-칼릴 지브란